

3) 아홉개 반의 손가락



이 동화는요

히말라야에 있는 계곡에 착하고 인정많은 여왕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님이 어린 공주였을 때 항상 공주님 곁에서 돌봐주던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님이 햇사과가 먹고 싶다고 하여 하녀가 사과를 깎다가 그만 칼을 떨어뜨려 공주님의 새끼손가락이 반으로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화가 난 공주님은 하녀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몇 달 뒤 공주가 산책을 나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궁전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요괴들이 나타나 지하 세계로 공주님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님의 새끼 손가락 반이 없다는 걸 알고는 공주님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살아서 궁으로 돌아온 공주님은 너무 행복했고 손가락이 아홉 개 반이라는 운명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하녀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녀를 만나게 된 공주는 하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하녀 역시 공주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공주님이 저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제가 곁에 있었다면 제가 대신 요괴들에게 끌려갔을 겁니다. 모든 일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이지요.” 공주님 역시 하녀에게 고마워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것 또한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후 공주님은 모든 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히말라야 왕국을 어질게 잘 다스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나 일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필요성을 알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융통성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자신의 모습이나 일에 대해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와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주는 왜 아홉 개 반 손가락이 되었나요?
- 숲속에서 만난 요괴들은 왜 공주를 데려가지 않았나요?
- 감옥에서 풀려난 하녀는 왜 공주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나요?



알아봅시다.

-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씩씩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알아보시다.

Tip!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는 태어날 때부터 한 손에 손가락이 두 개 있고, 발가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워낙 몸이 약하고 손에 힘이 없어서 처음에는 손가락 힘을 기르려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지만 곧 남다른 음악성을 드러냈지요. 항상 웃는 얼굴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으며 신체적 단점을 극복하고 지금은 국내외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선 연주회를 통한 모금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103cm 희아의 기적]



체험해봅시다.

- '새옹지마'란 말의 뜻을 찾아보고 이 이야기와 비교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 사고하기 : 내가 가진 단점은 다르게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단점을 찾고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예: 밥을 늦게 천천히 먹는다 — 늦게 먹지만 대신 소화가 잘 된다.)

- 숲 속에서 만난 요괴들은 공주가 '완벽하지 않아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완벽함'이란 무엇 인가요? 특히 완벽한 외모란 어떤 것인가요? TV에서 나오는 텔런트나 가수들의 모습일까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이 완벽한 외모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 “우리 둘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것 또한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 (1) 위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 봅시다.
 - (2) 위의 말은 우리의 삶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로써 모두가 연 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화 '아바타'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 어 봅시다.
- 최근에 서로 마음이 상했거나 다투었던 친구가 있거나 사과해야 할 친구가 있다면 찾아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고 전해봅시다.



참고자료

- 새옹지마(塞翁之馬)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멀리 달아나 버 렸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慰勞)하자 노인은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한 필의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축하하자 노인은 “도리어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라며 불안해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며 위로(慰勞) 하자 노인은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며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 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젊은이들은 싸움터로 불려 나가 대부분 죽었으나,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후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인생의 길흉화복에는 변화가 많으며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져 있다. (네이버 한자사전 참고)